

춤사위 語彙考

李 愛 珠*

1. 머릿말

춤은 많은 춤사위¹⁾가 조화, 통일되어 이루어진다. 춤을 하나의 詩로 본다면 춤사위는 言語인 것이다. 따라서 表現의 媒介體로서의 춤사위는 춤의 言語이다. 이 言語가 어떻게 조화, 형성되나에 따라 춤의 성패가 달려 있다. 또한 춤사위의 外形的인 울동과 거기에 내재해 있는 內面的인 의미의 조화로 춤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춤사위가 갖는 리듬과 의미의 조화가 춤의 生命力을 갖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춤사위는 자인적으로 일어나는 衝動을 根源으로 하고 있는 行動으로서 存在하는 것이다²⁾.

그러면 그 行動 즉 動作이 어떠한 방법으로 전해질 수 있는가 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그 動作의 움직임 자체가 그대로 전해질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방법으로 현재도 전승되고 있다.

둘째, 그림으로 전승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춤사위 형태가 완전히 만들어져 정지된 상태의 것은 그림으로 表示할 수 있으나, 춤가락³⁾과 춤가락이 움직이는 過程에

* 國文學科同門(古典文學專攻)

1) 몸의 울동적인 움직임(몸의 움직이는 형상)

2) Suzan Langer, *Dinamic Image*, 1964. New York

3) 춤사위의 의미와 같음

있어서 空間에서 이루어지는 動態를 그대로 표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⁴⁾.

셋째로는 춤사위의 움직임을 함축시키어 그것을 하나의 어휘로 표시한 경우가 있다.

이와같이 춤사위는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방법으로 전해질 수 있고 현재도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 그 세가지 방법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세째번의 경우이다. 현재 대부분의 춤은 그 어휘로서 전해지고 있고, 또한 그 춤을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춤사위 어휘는 대부분 口傳 혹은 문헌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문헌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는 춤사위 어휘도 몇몇 특정 문헌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어사전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있어 그 자료가 매우 빈곤한 형편이다.

따라서 춤을 연구하는데 있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휘를 정리하고찰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 작업은 제일 근본적인 문제이며, 그문제의 해결이 선명되지 않고서는 춤에 관한 모든 연구는 발이 묶이게 되는 셈이다. 춤사위 어휘의 연구를 통하여 본 춤의 본질과 춤의 미학을 밝히려는 것이 앞으로의 큰 과제인데, 본 논문에서는 그것의 첫번째 작업으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춤사위 어휘를 정리하여 그것의 형성방법과 그것에 따른 한국무의 특질을 밝히는 것으로 앞으로의 작업에 그 일부를 대신하겠다.

2. 연구의 대상 및 어휘의 수집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논문의 대상은 한국에서 전해지고 있는 전통무용을 중심으로 하겠

4) 金千興, 한국무용의 기본무보, 문화재관리국, 1969.

음은 말할 것도 있다. 그러나 진통무용이라 하면 그 범위가 너무나 광범하여 1차적으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 어휘의 수집이 가능했던 다음의 14종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다음의 각 종목은 다양한 춤사위로서 구성되었지만 그 춤가락이 어휘로 정착되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번 논문에서는 이미 문헌상에 나타난 것이나 그 지방 및 보유자들에 의해 구전되고 있는 용어만을 취급한 것을 밝혀둔다.

- ① 宗廟祭禮樂(保太平, 定大業)(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 ② 楊州別山台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2호)
- ③ 統營五廣大(중요무형문화재 제6호)
- ④ 固城五廣大(중요무형문화재 제7호)
- ⑤ 晋州劍舞(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
- ⑥ 鳳山달춤(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 ⑦ 東萊野遊(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
- ⑧ 勝戰舞(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
- ⑨ 僧舞(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 ⑩ 康翎탈춤(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
- ⑪ 處容舞(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 ⑫ 鶴舞(중요무형문화재 제40호)
- ⑬ 水營野遊(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 ⑭ 松坡산대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

위의 14종목은 필자가 수집 가능하였던 종목으로서 1차적으로 그 이상을 정하였다.

(2) 수집방법

수집활동은 14종목의 전수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하였다. 그 단체

들은 전승되고 있는 각 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분산되어 있었다. 전수소를 중심으로 하여 지방별로 분류해 보면,

① 서울지방……종묘제례악, 처용무, 학무, 승무, 봉산탈춤, 송파산대놀이, 강령탈춤

② 경기지방……양주별산대놀이(양주)

③ 경남지방……진주검무(진주), 승전무(통영), 통영오광대놀이(충무), 고성오광대놀이(고성), 동래야유(부산), 수영야유(부산)

위에서 분류한 바와 같이 직접 각 지방의 전수단체를 찾아가 종합적인 방법으로 어휘를 수집하였다. 이미 수차의 발표공연과 여러 문헌으로 나타나 있는 어휘들을 각 단체의 기능보유자들과의 개인적인 면담으로 재조사 확인하였다. 즉 기능보유자가 직접 그 춤사위를 몸짓으로 재현하면서 동시에 구전으로 전승되어 온 춤사위의 이름과 거기에 관한 설명을 자세하게 덧붙여 주었다.

도표 I

종목	기 간	기 능 보 유 자	장 소
종 묘 제 례 악	1974. 3~1974. 10	김천홍	시 울
양 주 산대 놀이	1972. 4~1973. 10	유경성, 고명달	양 주
통 영 오 광 대	1974. 10~1974. 11	오정두, 문장섭	동 영
고 성 오 광 대	1974. 10~1974. 11	조용배, 어종복	
진 주 검 무	1974. 10~1974. 11	김자진, 김수악	
봉 산 탈 춤	1971. 4~1974. 10	김선봉, 양소운, 윤옥	
동 래 야 유	1974. 10~1974. 12	문장항, 양형세	
승 전 무	1974. 11~1974. 12	정순남	
승 무	1671. 1~1974. 9	한영숙	
강 령 탈 춤	1974. 6~1974. 9	양소운	
처 용 무	1970. 3~1974. 9	김천홍	
학 무	1972. 1~1974. 9	한영숙	
수 영 야 유	1974. 10~1974. 12	정대운	
송 파 산대 놀이	1973. 3~1974. 9	허호영	

그리고 그 방법만으로는 여러모로 그 설명이 어둡고 미비하였으므로 필자가 직접 전수받음으로써 그 조사의 정확성이 가능하였다. 다음에도 표로서 기능보유자들과의 면담 및 전수에 의한 조사경위를 밝혀 둔다. (도표 I 참조)

이러한 정보 제공자들의 제보 이외에 문헌에 의한 조사도 아울러 진행시켰다. 특히 궁중무의 경우 어휘의 대부분은 악학궤범 및 시용무보에 기록된 것을 수집하였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3. 어휘의 분석

한국 춤사위 어휘들이 나타내고 있는 뜻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여러가지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을 분류하기에 앞서 서구의 춤사위 어휘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알아 볼 필요가 있겠다. 그 한가지 예로 세계적으로 추어지고 있는 서구의 전통무용인 발레의 경우를 살펴 보겠다. 발레의 춤사위 어휘는 대개의 경우 일관되게 움직이는 인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피에·아·포안트(Piet a pointe) : 발톱으로 서는 동작

앙·아리에르(En arère) : 뒤로

소떼(Saute) : 도약

에사빠(Échape) : 양발이 겹쳐진 위치에서 재빨리 움직이며 번리는 동작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어휘가 구체적으로 동작의 상대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춤사위의 어휘는 발레의 어휘와는 다른 성격으로 산발적으로 붙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어휘가 내포하고 있는 성격이 비슷한 것들을 한데 묶어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칭한 말(단어)
- ② 신체부위를 사용하여 지칭한 말
- ③ 동작의 움직임을 사용하여 지칭한 말
- ④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말
- ⑤ 동물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칭한 말
- ⑥ 의태, 비유적인 표현으로 지칭한 말
- ⑦ 소도구와 의상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칭한 말
- ⑧ 춤의 대형(隊形)을 나타낸 말

다음에 위의 8가지 분류를 각 항목별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① 인간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칭한 말

여기 나타나는 것은 다음 같은 배역의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예] 문동춤(통영오광대·고성오광대) 밭뚝이춤(강령탈춤·고성오광대)
할미춤, 승무(동래야유), 먹중춤(봉산탈춤)

즉 문동이, 밭뚝이, 승, 먹중등 각 인물의 명칭이 그대로 그 춤의 어휘를 구성하고 있으며, 춤 또한 각 인물의 특징적인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 말(단어)들은 모두 민속춤 그 중에서도 탈춤에 속하는 어휘이며 또한 구전되고 있는 어휘들이다.

② 신체의 부위를 사용하여 지칭한 말(단어)

이 말들은 모두 20개이고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예] 고개잡이, 리리잡이, 배꿈춤(양주산대놀이), 무릎치기, 배지기
(송파산대놀이), 팔뚝잡이(양주산대놀이·송파산대놀이), 손사위(진주검무), 배춤, 곰추춤(동래야유), 어깨춤(동래야유·양주산대놀이·고성오광대), 궁둥이춤(봉산탈춤·동래야유·고성오광대), 엉덩이춤(동래야유·양주산대놀이·송파산대놀이), 발흔들사위(봉산탈춤)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신체의 부위를 사용한 어휘이며, 그 춤

자체도 그 부위를 크게 움직이며 확대시킨 춤이다.

이 춤사위 어휘들은 진주검무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탈춤의 어휘들이며, 구전되고 있는 민속춤의 어휘들이다.

③ 동작의 움직임을 사용하여 지칭한 말

이 말들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동작의 움직임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후설하겠지만 한국의 춤사위 어휘는 반수 이상이 동작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양의 발레 춤사위 어휘에서도 거의 동작의 움직임을 그대로 지칭하고 있었다. 이점은 앞으로 자세히 비교 연구되어야 하겠다.

이제 한국무의 춤사위 어휘를 다시 세분하여 움직임을 형상에 의해 분류하여 보겠다.

1. 몸을 굽히거나 숙이는 것을 표현한 말(단어)

伏舞(양주산대놀이), 숙은사위(진주검무), 俯, 鼓髯, 俛(하무), 일드름사위, 구불춤, 기는춤, 뒤집사위(동래아유)

2. 고개(목)의 움직임을 표현한 말(단어)

回顧, 相面(치용무), 끄덕이(양주산대놀이) 舉首, 內顧, 見蓮筒(하무)

3. 팔의 움직임을 표현한 말(단어)

垂手舞(치용무), 合掌再拜(양주산대놀이), 斜直指, 點腹, 合肱, 下垂, 點胸, 外舉, 舉肩, 垂腹, 還舉, 外揮, 引肱, 點乳, 兩手據肩, 兩手下垂, 腹把, 折肩, 肩把, 荷肩, 點腹, 割臑, 兩手引膝, 片直指, 推前, 推後, 拔劍, 批臂, 伸臂, 還臂, 翻劍, 翻傘, 點膝, 割劍, 割傘, 折翻, 外把, 後佛, 舉揮 兩手荷肩, 膝上內揮, 折肩, 打肩, 翻肩, 刺空, 引膝, 霸劍, 膝把, 跪左膝 下膝, 點膝(종묘제례악) 양팔든어름사위, 울러맨사위(동래아유) 곱사위(송파산대놀이, 양주산대놀이), 줌(뿔)춤(송파산대놀이), 외사위, 사위돌리기, 만사위,

사위 팔엿기, 양사위(봉산탈춤), 활개 퍼기, 활개 쪼기(양주산대놀이), 매는가락(고성오광대).

위에 열거한 팔의 움직임 표현한 어휘는 모두 63개이다. 그중 51개의 어휘가 한자말로 되어 있고 거의 궁중무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이며 나머지 12개의 어휘는 주로 구전되고 있는 탈춤의 어휘들이다.

ㄱ. 발의 움직임과 걸음걸이를 표현한 말(단어)

驪足(처용무) 蹈進, 驚躍, 翔翔(학무) 제자리걸음(봉산탈춤) 집거리걸음(양주산대놀이), 起立.

이 말들은 발을 들거나 또는 짚는 형태와 걸음의 형태들을 표현하고 있다.

ㄴ. 몸전체의 움직임 표현한 말(단어)

搖身(처용무) 蹈身(학무) 누름새, 덧배기춤(통영오광대), 베기는가락, 뱃배기춤(고성오광대), 베기는춤(수영아유), 베김사위, 배김새(동래아유)

이 말들은 몸의 움직임 즉 몸통(胴體)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④ 감정을 형용하여 지칭한 말(단어)

懽場舞, 足蹈歡舞(처용무)

이 말들은 단 2개 뿐이며 기쁨의 감정을 뜻하고 있는 궁중무의 어휘이다.

⑤ 동물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칭한 말(단어)

다음의 말은 동물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가 춤의 이름으로 사용하였다. 그 동물을 짐승류, 조류, 기타(인물)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ㄱ. 짐승류

늪춤(수영아유), 원숭이춤, 사자춤(강령탈춤·봉신탈춤), 원숭이걸음(양주산대놀이)

ㄴ. 조류

까치걸음(봉산탈춤, 송파산대놀이, 양주산대놀이), 황새걸음(봉산탈춤)

ㄷ. 기타

자라춤, 용트름(송파산대놀이, 양주산대놀이)

모두 8개의 말(단어) 중 짐승을 지칭한 말은 4개, 새를 지칭한 말은 2개, 기타 2개로 그중 2개 만이 남부지방(수영야유, 승전무) 것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중부지방(경기, 황해)의 것이다. 어휘의 명칭도 모두 토박이말로 되어 있으며 구전되고 있는 민속무의 용어이다.

⑥ 의태, 비유적인 표현을 한 말(단어)

ㄱ. 의태적인 표현을 한 말

너울질, 여단이(양주산대놀이·송파산대놀이), 명식말이, 화장무, 엽퐁뎡이, 진드렁(송파산대놀이)

의태적인 표현을 한 말은 7개로 모두 경기지방의 탈춤이며 구전되는 어휘들이다.

ㄴ.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단어)

落花流水舞, 散作花舞(처용무), 흥두깨춤, 평계춤(동래야유)

⑦ 소도구와 의상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칭한 말(단어)

쌍칼질(진주검무) 탈놀음 북춤(고성오판대), 검무, 법고놀이, 부채놀이(양주산대놀이)

이 말들은 춤에서 사용되는 소도구를 그대로 그 어휘에다 적용시키었다. 칼, 탈, 북, 부채 등의 명칭이 사용되었다. 양주산대놀이(경기지방)의 말은 모두 한문(검, 법고)으로 표현되었으며 남부지방의 말들은 모두 토박이말로 표현되었다.

ㄴ. 의상

장삼춤(강령탈춤)

⑧ 춤의 대형을 나타낸 말(단어)

이 말들은 춤의 형태, 대형 등 주로 여러명이 하는 군무의 움직이는 선을 나타낸다. 17개의 어휘 중 한자말로 지칭된 어휘가 14개, 우리말로 지칭된 어휘가 3개이다.

四方치기, 三進三退(양주산대놀이), 向外舞, 分立向內舞, 四方分隊舞, 相對舞, 입춤, 연풍대가락(진주검무), 回舞(승전무, 처용무), 맞춤(수영야유, 양주산대놀이), 相換舞, 外狹舞, 周旋, 舞退, 回旋, 內旋(처용무), 對舞(처용무, 양주산대놀이)

이곳에서 보면 궁중무 계통과 민속무 계통의 춤사위 어휘가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양주산대놀이의 三進三退, 진주검무의 四方分隊舞, 相對舞, 相換舞 등은 궁중무의 춤사위 어휘와 일치한다. 궁중무에 사용된 어휘는 거의 분현적으로 전해지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예로는 처용무, 학춤 등의 춤사위 어휘가 약학재민에 거의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어휘가 민간으로 퍼져 구전되면서 쓰여진 것이 아닌가 한다.

앞에서 조사한 14종목의 말 중에서 조사의 대상으로 삼은 어휘는 모두 156개이다. 그 어휘를 같은 성격을 가진 8개의 항목으로 분류해 본 결과 가장 많은 어휘를 가진 항목부터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동작의 움직임을 사용하여 지칭한 어휘 : 94개 (60.3%)
- 2) 춤의 대형(형태)를 나타낸 어휘 : 17개 (10.9%)
- 3) 신체부위를 사용하여 지칭한 어휘 : 13개 (8.3%)
- 4) 의태, 비유적인 표현으로 지칭한 어휘 : 10개 (6.4%)
- 5) 동물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칭한 어휘 : 8개 (5.1%)
- 6) 의상, 소도구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칭한 어휘 : 7개 (4.5%)
- 7) 인간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칭한 어휘 : 5개 (3.3%)
- 8) 감정을 형용하여 사용한 어휘 : 2개 (1.3%)

4. 어휘를 통해 본 한국무의 특징

앞에서 조사 분석된 통계를 가지고 춤사위 어휘를 통해서 본 한국무의 특징을 밝혀 보기로 하겠다.

첫째 춤사위 어휘의 반수 이상이 동작의 형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그 표현 중에서도 팔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 제일 많고 내부분이 궁중무의 어휘이다. 여기에서 궁중무의 어휘 표현이 주로 외형적 형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춤사위 어휘 156개 중 112개의 어휘가 사람과 관계되는 뜻을 나타내고 있으니 춤사위어휘의 대부분은 사람의 움직임을 뜻한 것이다.

두번째로 나타난 특징은 그 어휘가 문헌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것이 주로 궁중무에서이고, 구전으로 전승되고 있는 것은 민속무 계통인 바, 궁중무에서의 춤사위 어휘는 거의 한자말로 쓰여진 것으로 보아 궁중에서 사용되던 언어가 그대로 춤사위에도 붙여진 것이 아닌가 한다. 그 어휘 자체도 관념적이며 추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속무에서의 춤사위 어휘는 궁중무의 어휘와는 달리 서민의 생활주변이나 흔히 접하고 있는 물건 등에서 찾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어휘 자체도 대부분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리고 궁중무에서의 춤사위 어휘와 민속무에서의 춤사위 어휘가 동일한 경우 이 둘 사이에 상호 연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대체로 궁중무의 어휘에서 민속무의 어휘로 전파된 것이라고 보아 좋을 것 같다.

이와 같이 춤사위의 어휘를 통하여 한국무의 특징을 고찰할 수 있는 바, 먼저 궁중무의 경우를 보면 춤사위 어휘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과 같이 그 춤 자체도 추상적으로 처리되어 있고, 민속무는 그와 반대로 그 어휘가 실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 춤사위도 어떤

사물이나 인간, 동물의 움직임을 시인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5. 끝맺는 말

대부분의 경우 춤이 존재하면서부터 후차적으로 그 춤의 용어가 생겨나게 된다. 이상에서 보아온 바에 의하여 춤사위 어휘가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되었나 하는 것이 문제이다. 앞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원래 그 단어들은 다음의 8가지의 종류에서 왔다. 즉 동작의 움직임, 춤의 대형, 신체부위, 의태 비유적인 표현, 동물의 명칭, 의상 소도구의 명칭, 인간의 명칭, 감정형용 등에서이다. 그 중에서 동작의 움직임, 신체부위, 인간의 명칭 등 즉 인간으로부터 나온 말이 전체의 71.8%로서 현격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간에 해당되는 말 중에서도 그 움직임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춤 자체가 인간에 의하여 육체적 움직임으로 추어지는 것이라 인간에서 온 명칭이 대다수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한국 춤사위 어휘의 조어 방법은 발레 춤사위 어휘가 거의 직접적으로 춤사위를 표현한데 비하여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비유방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즉 발레 어휘는 그 동작 자체를 단순히 표현한 것을 알 수 있고 한국춤 어휘는 그 춤의 전체적인 느낌, 분위기 등도 함께 표현하여 외형적인 움직임만이 아닌 내면적인 세계까지도 표현시키고 있다. 특히 궁중무의 춤사위 어휘는 동작의 형상을 그대로 표현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있고 민속무의 춤사위 어휘는 그 동작 자체만이 아닌 전체적인 느낌 분위기 등에서 오는 민속적 어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상에서 한국 춤사위 어휘의 전반적인 특징은 그 표현방법에서 움직임의 다양성과 넓은 폭을 가지고 있어 그 범위가 여유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상당히 세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춤사위 어

위는 그것을 쓰는 사람들의 생활과 감정 등이 잘 반영되어 있고 그것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資料—춤사위 어휘의 해설

(1) 중요제례악

○斜直指 : 바로 서서 한 팔은 위로 한 팔은 아래로 가리키면서 비스듬히 직선을 만든다⁵⁾.

○點腹 : 두 주먹이 아래를 향하면서 오른 손으로 왼 손을 덮어 배에 붙인다.

○合胷 : 상반신을 약 40°로 굽히고 양손을 가슴 사이에 붙이되 오른 손이 왼손을 덮는다.

○下垂 : 합흉에서 손을 아래로 내리되 몸에서 약 40°가량 옆으로 뻗는다.

○點胸 : 손을 가슴 사이에 댈다.

○外擧 : 하수에서 몸을 펴며 손을 옆으로 차차 들어 올려 어깨에서 약 15°가량 내린다.

○擧肩 : 외거에서 팔을 들어 뒤로 뒤집되, 어깨와 수평이 되도록 한다.

○垂腹 : 거전에서 허리를 굽히고 손을 얼굴 앞으로 돌려 배밑에 댈다.

○還擧 : 垂腹에서 외거 후 거전에 이르는 것.

○外擲 : 팔을 들어 얼굴 앞으로 뚫하여 밖으로 두르며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들었다가 내린다.

○引胷 : 바로 서서 두 손을 양 가슴 앞 가까이 끌어온다.

5) 李珠煥, 時用舞譜解題, 韓國民俗學會, 1956, p.189~194를 참고하여 풀이하였다. 중요제례악의 용어는 모두 上記 論文을 참고하였다.

○點乳：손을 가슴에 붙인다.

○兩手據肩：두 손을 접어 어깨로 올리는 동시에 오른발을 들었다가 허리를 굽히며 손과 발을 일시에 내린다.

○兩手下垂：두 손을 모아 허리를 비스듬히 굽히며 내린다.

○腹把：바로 서서 두팔을 左右로 약 45°가량 벌려 下垂한다.

○折肩：두 손을 얼굴 앞으로 모아 曲形을 짓되, 팔꿈치가 들린다.

○肩把：두팔을 얼굴 앞으로 점차 모아 들되 반달모양의 선을 만든다.

○荷肩：두 팔을 좌우로 벌리어 일직선을 만든다.

○點腹：오른손으로 왼손을 덮어 가슴에 붙인다.

○割脇：양손을 가슴에 교차하되 주먹이 위를 향한다.

○兩手引膝：두 팔을 높이 들어 옆으로 넘기어 한발은 앞으로 내딛고 허리를 뒤로 개친다.

○片直指：사직지에서 아래를 가리키는 동작만 없다.

○推前：바로 서서 두 손을 뒤로부터 앞으로 내민다.

○推後：허리를 굽히고 양손을 뒤에 붙인다.

○拔劍：허리를 굽히고 오른쪽 칼 든 손을 내리되, 몸에서 약 40°가량 前面 옆으로 내린다.

○推臂：팔을 비껴 위로 곧곧이 뻗는다.

○伸臂：팔을 비스듬히 뻗되, 시선은 그 편을 본다.

○還臂：팔을 한번 머리 위로 둘러 다시 신전 자세에 이르는 것.

○翻劍：칼 든 손을 굽히며 어깨까지 올리되 칼이 뒤로 향한다.

○翻拳：칼 안 든 손으로 曲形을 만들고 어깨까지 올리되, 주먹이 뒤를 향한다.

○點膝：허리를 굽히고 손을 무릎에 붙이되, 붙인 다리를 조금 든다.

○割劍··두 손을 가슴에 교차하되 주먹이 위를 향한다.

○割拳：두 손을 가슴에 교차하되 주먹이 위로 향하고 왼손이 위로

온다.

○折翻 : 두 팔을 어깨에서 약 한치가량 쳐들고 팔꿈치를 구부려 들고 주먹을 위로 비튼다.

○外把 : 두 팔을 左右로 벌려 하수하여 다시 아랫배 앞으로 손을 모아 가져온다.

○後拂 : 두 손을 뒤로 뿌리며 허리는 들어 구부린다.

○擧揮 : 두 손을 모아 밖으로 돌려 우측으로 한다.

○膝上內揮 : 허리를 구부리고 두 손을 위에서 안으로 돌려 肩下로 모아 놓는다.

○打肩 : 진 칼을 들어 어깨를 치는 동작을 한다.

○覆臂 : 바로 서서 양손을 복부에 교차한다.

○刺空 : 복비동작에서 왼손 주먹으로 하늘을 찌르는 시늉을 한다.

○引膝 : 양손을 아래로 내리되 손을 무릎에서 떼고 다리는 든다.

○覆劍 : 양손을 배에서 들었다 덮는다.

○膝把 : 허리를 굽히며 무릎을 들되, 양손을 무릎에 붙인다.

○跪左膝 : 왼발을 세우고 오른발을 꿇고 안되, 두 손을 왼편 무릎에 놓는다.

○起立 : 허리를 펴며 양손을 배위에 두고 일어선다.

○下膝 : 허리를 굽히며 한쪽 무릎 편으로 두 손을 모아 내린다.

○點腴 : 바로 서서 한쪽 허리로 두 손을 모아 가져간다.

(2) 양주별산대놀이

○여달이 : 여다지 문을 여는 동작을 비유한 것으로, 두 손을 가슴에 모았다가 다시 양팔을 위로 치켜 올리며 전면으로 내피고 양쪽으로 올리며 다리는 바른편으로 갔다 왼편으로 갔다 하면서 전진하는 춤⁶⁾이며

6) 李杜鉉, 韓國假面劇, 서울, 三和印刷株式會社, 1969, p.214.

깨끼춤⁷⁾에 속한다. 또한 故 金星泰翁은 이 춤을 나비가 꽃을 보고 날아와서 앉을듯 하는 춤이라 하였다⁸⁾.

○어깨춤 : 깨끼춤에 속하며 어깨에 멧을 풀어내는 춤⁹⁾으로 어깨를 으쓱거리며 온몸의 멧을 풀어내어 맞춤을 추는 경우에 쓰이며 상대방과의 거리를 조절하거나 자기의 위치를 점검하는 준비동작이다¹⁰⁾.

○엉덩이춤 : 엉덩이에 「멧」을 풀어내는 것으로 양주별산대놀이의 기본적인 춤이다¹¹⁾.

○짐거리걸음 : 뒷짐을 지고 걸어가는 걸음걸이춤이다¹²⁾.

○너울질 : 상대자를 유인, 농락하며 쫓아내는 춤¹³⁾이며 날아보려고 요동을 하는 시늉의 춤이다¹⁴⁾.

○까치걸음 : 이편 다리, 저편 다리로 양감질하듯 꺾충꺾충하고 지면을 보면서 팔짓 다리짓을 하며 까치·걸는 시늉의 춤¹⁵⁾으로 깨끼춤에 속하며 취발이와 선님이 이 춤을 춘다.

○맞춤 : 두 사람이 마주보고 추는 춤으로 양주별산대놀이의 일반적인 형식이다¹⁶⁾.

○팔뚝잡이 : 바른 편 다리를 길게 내밀고 바른손을 내 뻗어서 구부리

7) 山臺춤에는 「그드름춤」과 「깨끼춤」 등 두 종류의 춤이 있는데 「그드름춤」은念佛曲으로 추는 춤이며 「멧」을 마다속에 집어넣은 춤이고 「깨끼춤」은 打鈴調에 맞추어 그 「멧」을 풀어내는 춤이다. 깨끼춤에는 4종류의 춤이 있는데 「제자리 깨끼」「엇세기 깨끼」「끝은치기 깨끼」「쌍발치기 깨끼」 등이다. 金星泰구술, 심우성체록 「양주별산대놀이 기초자료」 韓國民俗劇研究所, 1964.

8) 심우성 上揭書 p.26.

9) 上同

10) 김세중, 한국민속극춤사위연구, p.57.

11) 심우성, 前揭書, p.26.

12) 김세중, 前揭書, p.53.

13) 심우성, 前揭書 p.24.

14) 李杜鉉, 前揭書, p.213.

15) 李杜鉉, 前揭書, p.214.

16) 심우성, 前揭書, p.26.

고 왼손은 바른편 팔꿈치를 쥐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다가 주춤주춤 뒤로 3,4보 간다. 또 반대로 왼편다리를 내놓고 이와같이 한다¹⁷⁾. 이춤은 그 드름춤과 깨끼춤 양쪽에 모두 속한다.

○사방치기 : 도포자락 또는 장삼자락을 머리 위로 펴서 두 손으로 잡고 주춤주춤하면서 한 방향에 돌아가서 재배하고 또 한 방향씩 돌아가서 재배하는 춤¹⁸⁾으로, 그드름춤에 속하며 上佐, 음중, 老丈 등이 춘다.

○對舞 : 왜장녀와 애사당이 작별할 때 추는 춤¹⁹⁾이다.

○용트름 : 장삼자락을 펴서 두 손으로 잡고 바른편 다리를 앞으로 내놓고 왼편다리를 뒤로 빼고 허리를 구부리고 머리와 두 손은 장단박자에 의하여 왼편으로 갔다가 다시 그 태도로 제자리에 와서 바른편을 잠깐 보았다가 제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이와같이 하여 사방을 도는 춤²⁰⁾이다. 또한 籠이 世上 밖에 나와서 이편 저편을 살피면서 세상실정을 돌아보며 꿈틀거리는 춤²¹⁾으로 그드름춤에 속한다.

○三進三退 : 3걸음씩 앞 뒤로 왔다 갔다 하는 춤으로 山臺춤의 기본 형식이다.

○활개격기 :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가는 시늉을 하는 춤으로 활개퍼기에 준하며²²⁾ 그드름춤에 속한다.

○활개퍼기 : 용이 날개를 펴고 날아가듯이 추는 춤으로, 두 손을 펴서 들고 고개를 끄덕끄덕 좌우로 돌리면서 3보전진 3보후퇴하며 추며²³⁾ 그드름춤에 속한다.

○허리잡이 : 두 손으로 허리를 잡고 여러가지 궁둥이짓 다리짓을 하

17) 李杜鉉, 前掲書, p.214.

18) 李杜鉉, 前掲書, p.212.

19) 심우성, 前掲書, p.24.

20) 李杜鉉, 前掲書, p.212-213.

21) 심우성, 前掲書, p.23.

22) 李杜鉉, 前掲書, p.213.

23) 李杜鉉, 前掲書, p.213.

는 춤²⁴⁾으로 상대자 앞에서 까부는 춤²⁵⁾이며 깨끼춤에 속한다.

○원송이걸음 : 갈지자걸음과 같으나 유난히 발을 올렸다 내렸다 몸을 흔들며 원송이처럼 강충강충 걸어가는 걸음걸이춤²⁶⁾이다.

○合掌再拜 : 天神께 告하는 儀式舞²⁷⁾로서, 상좌중만이 추는 것으로 바른손을 차춤차춤 들고 왼손도 같이 들어 합장하는데 전에는 합장재배에 15분이나 걸렸다고 하²⁸⁾며 그드름춤에 속한다.

○뱀고놀이 : 북놀이를 하는 춤²⁹⁾이다.

○부채놀이 :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놀이마당 중앙에서 깨끼, 고개잡이와 비슷하게 벌떡뛰어 두 손을 들어 위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자리를 돈다³⁰⁾.

○자라춤 : 소무만이 추는 춤인데 바른손을 머리 앞까지 올려서 손뼉(바닥)을 짚었다 뒤집었다 하다가 내려놓고 또 왼손도 이와 같이 하는 춤이며³¹⁾, 자라가 헤엄치듯 손짓하여 유인하는 춤³²⁾으로 깨끼춤에 속한다.

○伏舞 : 老長이 엎드려서 세수도 하고 이도 잡는 동작³³⁾으로 기력이 없어서 엎드려서 추는 춤³⁴⁾으로 그드름춤에 속한다.

(3) 통영오광대

○누름새 : 춤이 바뀔 때 배기는 것을 누름새라 한다. 즉 잣은 발자국

24) 李杜鉉, 前掲書, p.214.

25) 심우성, 前掲書, p.25.

26) 김세중, 前掲書, p.53.

27) 심우성, 前掲書, p.23.

28) 李杜鉉, 前掲書, p.212.

29) 심우성, 前掲書, p.26.

30) 김세중, 前掲書, p.61.

31) 李杜鉉, 前掲書, p.214.

32) 심우성, 前掲書, p.26.

33) 李杜鉉, 前掲書, p.213.

34) 심우성, 前掲書, p.26.

으로 빨리 걸리 걸어나가 급히는 사위³⁵⁾이다.

○문둥이춤 :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벌면서 나와 재담하고 춤을 춘다³⁶⁾.
그 다음에 범고를 주어가지고 추는데 그때부터는 떨지 않는다³⁷⁾.

(4) 고성오광대

○북춤 : 문둥광대가 북을 가지고 한바탕 북을 놀리며 추는 춤³⁸⁾으로 소고로 얼굴을 가리고 나와 손을 펴서 무릎을 치며 탄식하고 나서 소고를 보고 흥에 겨워 소고를 잡고 춤가락으로 들어간다³⁹⁾.

○메는가락 : 어깨위로 한팔을 메며 추는 춤⁴⁰⁾이다.

○궁둥춤 : 허리가 굽은 큰 어미가 담뱃대를 들고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추는 춤이고 또한 비비가 짐승같이 허리를 굽혀 궁둥이를 흔들며 나갈 때도 춘다.

○배기가락 : 한발 뛰어 한발 뺨고 앉는 동작으로 춤을 맺고 끝다⁴¹⁾.

○어깨춤 : 덧가락으로 5광대가 주로 춘다⁴²⁾.

○뗏배기춤 : 어깨춤에서 오른손 왼손을 번갈아 올리며 뛰는 춤이다.
이 춤은 오광대의 기본춤이다.

○탈놀음 : 탈을 앞, 뒤, 좌, 우로 숙이고 들고 하며 추는 춤이다⁴³⁾.

○말뚝이춤 · 동래야유의 말뚝이역에서 볼 수 있듯이 健舞에 가까운 활발한 것이었으나 지방에 따라 후대로 내려오면서 차차로 완만한 춤으로 약화되어 온 것 같으며⁴⁴⁾ 오른손에 말채를 들고 채를 흔들며 뛰면서

35) 문창집談 1974. 10. 30.

36) 통영오광대, 통영오광대연수회, 1964.

37) 문창집談, 1974. 10. 30.

38) 李杜鉉, 金千興오광대, 文化財管理局 1964. p.61.

39) 趙續培談, 1974. 11. 11.

40) " 1974. 11. 11.

41) " 1974. 11. 15.

42) " 1974. 11. 12.

43) " 1974. 11. 12.

44) 이두현, 김천홍, 오광대 p.18.

배기는 동작을 하며 곳거리에 맞추어 춘다⁴⁵⁾.

(5) 진주검무

- 쌍칼질 : 칼을 양손에 각각 쥐고 칼을 휘두르며 춘다.
- 선사위 : 팔 벌리고 서서 걸으면서 추는 춤이다⁴⁶⁾.
- 숙은사위 : 한삼을 손에 끼고 무릎을 굽히는 사위이다⁴⁷⁾.
- 연풍대가락 : 허리를 엮치고 뒤로 넘기며 돌아서서 무대를 한바퀴 도는 사위이다⁴⁸⁾.
- 分立向內舞 : 양쪽으로 나누어 서서 안을 바라보며 추는 춤이다.
- 四方分隊舞 : 사방으로 나누어 서서 추는 춤이다.
- 입춤 : 양쪽에서 서로 보며 맨손으로 팔을 펴고 서서 추는 춤이다.
- 相對舞 : 1박에 左足 딛고 右手 옆으로 내리며 左手 펴들고 제자리로 다시 서서 족도하는 사위로 서로 상대편을 상대로 하여 추는 사위이다.
- 向外舞 : 서로 밖을 향하여 추는 춤이다.

(6) 봉산탈춤

- 외사위 : 오른발을 들고 오른팔을 머리위로 한번 감아 치며 뛰는 사위이다⁵⁰⁾.
- 양사위 : 외사위와 같으나 두손을 같이 감았다 푸는 춤이다⁵¹⁾.
- 꿇(겹)사위 : 외사위와 같으나 다만 한삼을 뿌릴 때 외사위는 그냥 뛰여 뿌림에 비해 겹사위는 한번 돌려 뿌리는 것이 다르다.
- 제자리걸음 : 제자리에서 걸음을 걸으며 몸을 놀리는 발사위이다.

45) 조용배談, 1974. 11. 13.

46) 金壽岳談, 1974. 11. 9.

47) 金子眞談, 1974. 11. 8.

48) 金壽岳談, 1974. 11. 9.

49) 金子眞談, 1974. 11. 8.

50) 김선봉談, 1974. 5. 30.

51) 김선봉談, 1974. 6. 5.

○까치걸음 : 팔을 머리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며 뛰면서 추는 춤으로 목중 합동춤에 퇴장하며 이 춤을 춘다.

○황새걸음 : 발걸음을 “드문 드문” “엉큼 엉큼” 크게 떠며 걷는 춤으로 신장수가 원숭이를 업고 나가며 추는 춤이다⁵²⁾.

○먹중춤 : 먹중 8인이 하나씩 나와서 저마다의 개인적인 춤을 추고 들어가고 다시 나와 8인의 뭇동춤으로 끝난다.

○궁둥이춤 : 한손에 부채 들고 한손에 방울 들고 궁둥이를 좌우로 심하게 흔들며 대면서 추는 춤이다.

○발흔듬사위 : 누워서 발부터 흔들며 추는 춤이다⁵³⁾.

○사위팔엇기 : 한삼을 다른 팔위에 엇고 옆으로 고개를 흔들며 가재 걸음처럼 나가는 걸음사위춤이다⁵⁴⁾.

(7) 동래야유

○베김사위 : 베김새라고도 하며 뛰어 엉거주춤으로 몸통을 나추어 말채를 들었다가 팔꿈치를 굽히며 右측 귀뒤를 훑어 목덜미에 갖다 붙이고 左手는 左側옆구리에 붙이고 흔들며 일러대는 춤이다.

○평계춤 : 물을 푸는 평계(논에 물을 푸는 農具로서 손잡이가 네箇이며 두사람이 손잡이를 마주서서 잡아 물을 퍼 올리는 연장)처럼 여러사람이 모여 들어 한사람의 다리와 손을 잡아 右左上下로 흔들며 추는 춤이다⁵⁵⁾.

○배춤 : 배를 내놓고 추는 희극우이며 웰레춤이라고 한다⁵⁶⁾.

○어깨춤 : 어깨를 우짚거리며, 본격적인 덧배기춤으로 들어가기전에

52) 김선봉談, 1974. 5. 30.

53) 양소운談, 1972. 5. 10.

54) 김세중, 前掲書, p.67.

55) 千在東, 東萊野遊연회본 民學社, 1974. p.41.

56) 이동안談, 1974. 10. 20.

추면서 자세를 잡는다⁵⁷⁾.

○엉덩이춤 : 엉덩이 제대 각시를 데리고 갈 때 할미가 어이없다는 듯이 엉덩이를 흔들며 뒤따르는 춤이다⁵⁸⁾.

○궁둥이춤 : 엉덩이춤과 같다.

○뒤집사위 : 가슴과 배를 하늘로 향하여 뒤집혀 양관을 받치고 묘한 시늉으로 성행위를 상징하는 열광적인 동작⁵⁹⁾을 하며 추는 춤으로 요동춤⁶⁰⁾이라고도 한다.

○굽추춤 : 허리를 낮추며 두릎을 굽혀 몸을 밑으로 갈아앉힌 다음 제자리에서 얼르며 추는 춤이다⁶¹⁾.

○울러맨사위 : 베김사위와 같으며 말뚝이가 양반들의 부름에 돌연 나타나서 모르는 척하고 채찍으로 위협을 주며 추는 춤이다⁶²⁾.

○없드름사위 : 판을 짚고 없드리 추는 춤이다⁶³⁾.

○기는춤 : 뿔뿔이 기어 다니면서 추는 춤으로 길사위라고도 한다⁶⁴⁾.

○구불춤 : 누워서 구을며 추는 춤이다⁶⁵⁾.

○양팔든 어룡사위 : 말뚝이가 양반들의 부름에 등장하며, 양팔을 좌우로 어깨높이로 올려 거듬거리 어루는 춤이다⁶⁶⁾.

○홍두깨춤 : 뻗뻗이 서서, 손을 홍두깨 놀듯이 위로 빼올리며 춘다⁶⁷⁾.

(8) 승전무

57) 千在東, 前掲書, p.8.

58) 千在東, 前掲書, p.33.

59) 한국가면극의 연구, 창작과 비평 24집, 1972.6. p.120.

60) 千在東, 동래야류연구, 서남당 韓國民俗劇研究所, 1973. p.298.

61) 이동안談, 1974.10.20.

62) 千在東, 前掲書, p.297.

63) 千在東, 前掲書, p.298.

64) 千在東, 前掲書, p.298.

65) 千在東, 前掲書, p.298.

66) 千在東, 前掲書, p.297.

67) 이동안談, 1974.10.21.

○三進三退 : 홀어졌다가 모여드는 형태로 세번 전진, 세번 후퇴하는 작전을 말한다.

○엇사위 : 팔을 어긋지게 놀리는 춤이다.

○모듬사위 : 손을 모으는 사위다.

(9) 승무

○연풍대 : 굿거리장단 마지막에 등근원으로 도는 동작인데, 한발 옆으로 짚어 앉으며 들면서 일어나는 동작을 계속 반복한다.

○어깨춤 : 몸의 중심부분에서 흥을 어깨로 전달하여 이것을 “節度있게 遠心的으로 四肢에 發展시키는 것”으로 外型的으로는 어깨만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나 이 움직임은 體內에서부터 출발하여 몸 전체가 움직여지는 동작이다.

○짚은발 : 발의 나비를 적게 하여 빠른 속도로 재게 나가쁜 것을 말하며 짚은 걸음걸이라 할 수도 있다.

(10) 강령탈춤

○장삼춤 : 장삼소매를 고개너머로 휘두르는 동작이다⁶⁸⁾.

○원승이춤 : 타령,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서 깨끼리춤과 굿거리춤을 한참 추다가 퇴장하는 춤이다⁶⁹⁾.

(11) 처용무

○擧足 : 발을 무릎굽혀 들어 올린다.

○垂手舞 : 두 손을 앞으로 여미고 무릎을 굽힌다⁷⁰⁾.

○相面 : 서로 본다.

○回顧 : 돌아 본다.

68) 강령탈춤 팜프렛, 1971. 7.

69) 任哲宰, 康翎탈춤 臺詞, 서낭당, 1972. p.125.

70) 성경린, 조선의 아악, 博文出版社, 1947. p.153.

○散作花舞：꽃잎이 사방으로 흩어지듯이 대형이 밖으로 퍼진다.

○足蹈數舞：무릎을 많이 굽히며 발걸음을 걷는 동작으로 오락적 색채를 농후하게 띠우고⁷¹⁾ 있다. 처용무는 전도와 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족도환무는 후도처용무 끝부분에 나온다.

○落花流水舞：갓은도드리곡에 맞추어 무대를 바른편으로 돌아 퇴장하는 춤인데, 두손을 오른어깨에 메었다가 앞으로 뿌리고 다시 거두어 왼쪽어깨에 메고, 왼쪽어깨에서 또 앞으로 뿌리고 하는 동작⁷²⁾이다.

○周旋：체자리 도는 동작이다.

○回舞：무대를 크게 돌며 춘다.

○相對舞：둘씩 서로 돌아보며 춘다.

○搖身：몸을 흔든다.

○懽場舞：다섯처용이 퇴장하며 기뻐서 추는 춤이다.

(12) 활 무

○擧首：고개를 든다.

○鼓鞞：주둥아리를 친다.

○俯：머리를 숙이다.

○驚躍：놀라며 뛰다.

○翺翔：빙빙 돌며 날개를 위 아래로 흔드는 사위다.

○足進：앞으로 걸는다.

○振身：몸을 흔드는 동작이다.

(13) 수영야류

○벌춤：달보춤이라고도 하며 한참 춤을 추다가 나중에 달보를 잡아 먹음으로써 왜놈들에게 혼시하려는 춤이다⁷³⁾.

71) 李惠求, 牧隱先生の 驅儼行, 韓國音樂研究, 國民音樂研究會, 1957, p.299.

72) 성경린, 前揭書, p.148.

73) 정대윤談, 1974. 12. 10.

○맞춤: 상투춤이라고도 하며 일종의 퇴귀춤이다. 할미와 영감, 제대 각시와 영감등이 춘다.

○덧베기춤: 五廣大와 野遊에 공통되는 덧베기춤가락⁷⁴⁾으로 수영야류의 뼈대춤⁷⁵⁾이라고도 할 수 있다.

(14) 송파산대놀이

○화장무: 한손은 이마 앞으로 또 한손은 어깨높이로 수평이 되게 펴는 동작으로 반복을 한다⁷⁶⁾.

○춤(꺾)춤: 소무가 추는 여자 춤으로서 자라춤과 같은 것인데 주먹판을 가볍게 쥐었다 폈다 한다.

○엄퐁뎡이: 뒤면서 도는 것으로 한발을 들어 놓아 돌며 앉았다 일어난다⁷⁷⁾.

○전드렁: 두손을 위로 들고 좌, 우, 상하로 흔드는데 무릎을 굽힐때는 손도 자연스럽게 내렸다 폈다 한다⁷⁸⁾.

○명석말이: 위손은 위에서 떨어지고 아래손은 치 올리면서 접어두는데 마치 명석을 마는 형태와 같아 이같이 부르는데⁷⁹⁾ 엄퐁뎡이 하고 나서 굽혔다 일어날 때 앞으로 나가면서 한다.

○배치기: 여다지름 하다 한손은 배앞에 또 한손은 등뒤로 감는다⁸⁰⁾.

○팔뚝잡이: 한팔은 쪽 피고 다른 한손으로 반대 팔꿈치에 대며 쪽뺨는데⁸¹⁾ 쪽 뺨은 팔을 굽혔다 폈다 한다.

○무릎치기: 한 무릎을 구부려 들고 양손 번갈아가며 치고 대고 얼

74) 李杜鉉, 水營野遊, 文化財管理局, 1970, p.15.

75) 정대윤談, 1974. 12. 10.

76) 허호영談, 1973. 7. 30.

77) 허호영談, 1973. 7. 30.

78) 허호영談, 1973. 8. 5.

79) 무용용어심의안,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4. p.11.

80) 허호영談, 1974. 9. 15.

81) 허호영談, 1973. 8. 5.

른다⁸²⁾.

○자라춤 : 한팔은 이마앞에 한팔은 어깨높이로 수평으로 올려 이마앞에서 손바닥을 뒤집는 춤이며 주로 소무가 춘다⁸³⁾.

○응트럼 : 장삼자락을 위로 제쳐 허리를 굽혀 앞, 뒤로 저다가 장삼자락을 짝 뿌리고 선다⁸⁴⁾.

○가치걸음 : 뒷발을 잡아당겨 강충강충 뛰는 가치 걷는 시늉의 동작이다⁸⁵⁾.

○곱사위 : 화장무와 여다지를 합쳐 추는 춤이며⁸⁶⁾ 화장무를 한다음 팔을 내릴때는 머리뒤로 스쳐내린다⁸⁷⁾.

82) 허호영談, 1973. 8. 2.

83) 허호영談, 1973. 8. 2.

84) 허호영談, 1974. 9. 15.

85) 두용용어집의안, p.6.

86) " , p.6.

87) 허호영談, 1974. 9. 15.

參 考 文 獻

- 李珠煥, 時用舞譜解題, 民俗學報第1輯, 韓國民俗學會, 1956.
- 成慶麟, 朝鮮의 雅樂, 博文出版社, 1947.
- 金千興, 韓國舞踊의 基本舞譜,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69.
- 李杜鉉, 韓國假面劇,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69.
- 李惠求, 韓國音樂研究, 國民音樂研究會, 1971.
- 金潤洙, 藝術의 創造, 太極出版社, 1974.
- 朴泰男, 時調語彙의 作家別考察,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3.
- 金千興, 晉州劍舞,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66.
- 金千興, 鶴舞,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69.
- 趙鏞培, 演戲臺詞(固城五廣大), 固城五廣大研修會, 1974.
- 金千興, 勝戰舞(동영북춤) 문교부, 1967.
- 심우성채록, 楊州別山臺놀이 基礎資料(別冊) 한국민속극연구소 1964.
- 李杜鉉, 五廣大,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4.
- 千在東, 동래야류 연회본, 민학사, 1974.
- 金千興, 處容舞,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 重要無形文化財 解說,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3.
- 成慶麟, 宗廟祭禮樂, 문화재관리국, 1964.
- 李杜鉉, 水營野遊,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0.
- 千在東, 東萊野遊研究, 서낭당제4집 韓國民俗劇研究所, 1973.
- 採錄許浩永, 松披山臺놀이 臺詞, 서낭당제3집, 韓國民俗劇研究所 1972.
- 김세중, 한국민속극 춤사위 연구
- 任哲宰, 康翎탈춤臺詞, 서낭당제2집, 韓國民俗劇研究所, 1972.
- Suzan Langer, Dynamic Image, New York, 1964.